

- 2023년 제3차 자원봉사 정책집담회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거점을 위한 전략 모색

일시 2023. 09. 11.(월), 14:00

주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유튜브 온라인 송출

2023년 제3차 자원봉사 정책집담회

지속가능한 자원봉사거점을 위한 전략 모색

목 차

좌 장 : 윤순화 사무처장(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발 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거점의 전략을 묻다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토 론 1 생활권 자원봉사거점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향모색

이송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차장

토 론 2 대학캠프 운영으로 보는 자원봉사거점 운영주체의 다양성과 개방성

이은영 광주 남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토 론 3 인구감소 시대, 농어촌 지역에서 자원봉사거점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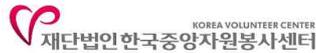
조은영 충남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사업팀 팀장

토 론 4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거점 운영의 고민과 새로운 제안
중구를 넘어서는 '중구형' 자원봉사거점

김인영 서울 중구자원봉사센터 부장

지속가능한 자원봉사거점의 전략을 묻다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흐름과 현황

✓ **현황: 이제 명실상부한 역사와 규모를 지닌 정책과 실천의 수단**

2005년 서울, 20여년, 15개 시·도, 118개, 8,609명
정부 통계, 운영지침,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조례 명시

✓ **의의: 도드라지지 않지만 자원봉사의 저변을 형성하는 기재**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 지원의 접점의 확장과 근접
시민참여의 주도성과 연결성 제고
지역사회 참여와 협치 생태계에 있어 자원봉사의 위상 재설정

이슈들1: 거점의 역할(정체성)

- ✓ 각 지역에서 거점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거점의 역할에 관한 관점의 변화가 포착됨

'작은 자원봉사센터', '직영 자원봉사단체' → '주민참여 플랫폼', '지역사회 조직화'

- ✓ "자신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원봉사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복돋우는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 (공간이나 단체 라기보다)

이슈들2: 거점이 맺는 관계

동주민센터와의 관계: 주체성

민관협력의 필요, 행정적 지원과 공신력 vs 반면 '동원'의 대상으로 변질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 자율성 ... 규범적 기준이라기 보다 견지할 지향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0년 운영지침)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2023년 운영지침)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관계: 탈경계성

자원봉사 거점은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나 주민참여 활동주체들과 경쟁하는 주체라기 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에 중점

이슈들3: 거점의 활동 범위

전국 자원봉사 거점의 활동 범위로 가장 많이 설정되는 유형은 행정동 단위

하지만 개념적으로 자원봉사 거점의 활동 범위가 동단위로 고정될 필요는 없어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동단위 보다 작은 아파트 단지, 농촌의 리(里) 단위, 혹은 행정구역을 벗어난 대학 캠퍼스
단위 거점이 시도되고 있음

아울러 복수의 동을 포괄하는 권역단위의 접근, 자원봉사센터 분소 형태, '생활권' 개념 등
도 시도 가능

전국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 자원봉사센터의 거점 전략 모색과 제시

여기에는 중앙-광역-기초 센터간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자원봉사 거점의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략적 방향에 관한 충분한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조직가로서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 모색

거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 즉 거점 리더의 발굴과 성장인데 이를 수행할
관리자의 조직화 역량이 거점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임

✓ 자원봉사 거점에 관한 공유된 담론 형성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자원봉사 거점 2.0'을 모색할 시기

각 지역 현장의 다양성은 존중하면서도 전국적 공통성에 기반한 개념과 철학 공감대

생활권 자원봉사거점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향모색

이송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차장

I. 생활권 자원봉사 거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대전시자원봉사센터는 2021년부터 자원봉사 생활권 자원봉사거점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II.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II-1. 거점에 대한 이론화 작업

대전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거점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이론화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자 연구사업¹⁾을 진행하였다.

1) 연구내용1.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분석

가. 선행논의들 검토

① 검토사항 : ‘거점’ 및 ‘조직화’에 대한 선행논의들에 대한 검토

② 시사점

- **조직화의 핵심요소**: 주민역량, 의제, 네트워크
- 조직화 추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거점구축의 중요성**
-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조직가의 존재가 중요**

나. 선행사례 및 현장의견 분석

① 심층집단면접: 총 5회 진행(서울2, 광주 광산구1, 대전2)

② 시사점

- 설계과정부터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느린 전략**

1) 조철민·김난희·김현정, 2021, 대전형 생활권 중심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 지역 주체의 활동시간에 맞는 공간 확보 및 운영
- 지역조건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모델 개발 및 실험
- 자원봉사 거점 운영방식의 유연화
- 자원봉사 거점 핵심주체의 역량강화 전략
- 자원봉사 거점 지원을 위한 조례, 운영지침 마련
- 자원봉사 거점 생태계의 파트너들을 포괄한 체계적 교육과정 설계

2) 연구내용2. 4가지 유형의 운영모델 제시

- 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협력모델
- ② 동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모델
- ③ 지역사회주체 중심모델
- ④ 지역사회 의제 중심모델

II-2. 거점사업의 방향과 실천

대전시자원봉사센터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하였다.

1) 거점에 대한 정의: 2개 이상의 조건 충족 시 거점으로 규정

- 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모임
 - ② 단체 간 서로 활동을 상의하고 협력하는 회의 구조
 - ③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만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
 - ④ 거점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 또는 자체적인 학습수행
- ※ 거점을 공간 중심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 거점구축의 실천전략

- 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셋 이상의 사람을 찾는다.
- ② 의견을 나누는 정기적인 모임을 만든다.
- ③ 거점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수하도록 한다.
- ④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생활권 단위 공간 확보를 해나간다.

3) 거점관련 사업수행

- ① 거점운영에 참여할 지역주체의 조사

- 자치구자원봉사센터와 거점운영에 대한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함
- 거점운영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기관단체에 대한 조사와 미팅
- 거점운영에 함께 할 5개의 지역주체 선정: 단체3, 협동조합2

② 거점운영 활동가 양성교육

- 교육과정개발과 진행을 위해 한국주민운동교육원과 업무협력
- 교육시간: 7회, 28시간(7회×4시간)
- 교육내용: 거점이해, 주민조직화방법, 종합워크숍
- 교육생: 1기와 2기, 총 18명 수료, 조직별 1~3명 참여
- 교육생 네트워크: 교육 수료생들의 활동가 연대의식 고취
- ※자원봉사센터 담당자 특별교육: 주민조직가과정(6개월 과정)

③ 거점별 프로그램 운영(시범사업)

- 거점별 시범사업 프로그램 지원: 5개 프로그램(주민참여 기반 프로그램)
- 현재: 돌봄4(어르신, 외국인, 1인가구 등), 주거환경개선1
- 예정: 대전문화재보호활동 등

④ 거점공간

- 현재: 시민공유공간1, 도시재생마을 커뮤니티공간1, 주거복지조합1
- 예정: 대전지하철역 유희공간1

⑤ 거점운영의 형태

- 지역 생활권단위 거점: 3개 지역
- 영역별 활동단위 거점: 재난안전, 문화재관리(예정)

Ⅲ. 대전시 거점운영의 과제

1. 센터 담당자의 조직화 역량

센터 담당자의 조직화 역량에 따라 거점 활성화 및 활동가의 성장과 직결됨

2. 거점조직 핵심주체의 역량강화

-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거점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가 양성
- 핵심주체의 민주적 리더십 향상

3. 새로운 거점의 확대발굴과 다양한 운영방식의 개발(시범운영)

대학캠프 운영으로 보는 자원봉사거점 운영주체의 다양성과 개방성

이은영 광주 남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 자원봉사 거점의 역할과 기능

자원봉사 거점은 생활권역 속 거점을 중심으로 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를 찾아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며 그 거점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올바른 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행정구역의 자원봉사캠프가 거점으로서의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거점 운영 방식의 한계

1) 생활권 중심의 거점의 한계

전국 각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캠프가 개소되어 자원봉사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도 동 자원봉사캠프가 95% 이상 거의 모든 동이 개소되어 각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캠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중심의 거점은 마을의 토박이 활동가들로 주로 구성되어 외부 자원봉사자 접근이 쉽지 않아 새로운 자원봉사자 유입을 위해서는 마을단위가 아닌 획기적인 거점이 필요합니다.

2) 유사기관 단체들의 활동 중복

마을 안에서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소통방,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여러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모두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안 활동가가 고정적이어서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소속되어 있고, 각 단체 특성에 맞춰 갈수록 활동들이 늘어나다 보니 구성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3. 대학캠프 운영으로 보는 자원봉사거점 운영주체의 다양성과 개방성

센터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수많은 문제 중 자원봉사자의 고령화와 활동 거점의 제약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청년 대학생들의 활동 참여가 가장 절실하나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정책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한 동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에 청년소년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의 참여유도를 고민해봤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과 학원 문제로 참여 가능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 이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활동시간의 조건을 가진 청년·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고민하다가 접근이 쉬운 대학 내에 거점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대학 내 자원봉사 캠프 개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학에 문을 두드렸던 거 같습니다. 2016년부터 광주대학교와는 리얼러브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학생자원봉사 담당자와 인연을 맺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2020년 광주대학교 적극적인 참여로 자원봉사 캠프를 개소하여 지금까지 4년째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새로운 거점에서의 대학 캠프 운영

보통의 자원봉사캠프는 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 캠프지기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기에 원활히 이루어질거라 생각하는 반면 대학 캠프의 경우 캠프장 및 캠프지기가 자주 바뀌어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몇 해간 진행해보니 대학의 경우 대규모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방식이나 노하우 정립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캠프 활동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캠프의 힘은 가장 힘든 시기 그 빛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참여율 감소 추세 속에서 전 연령대 자원봉사활동이 하락한 가운데 20대만이 유일하게 유지하며 전체 활동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였고, 실제로 22년 12월 기준 저희 남구의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90,312명 중 20대가 42,847명인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의 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저희 센터 자원봉사의 핵심이자 원동력은 20대이며, 바로 그 힘은 대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체계적으로 활동한다면 대학이나 기업 등의 거점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캠프가 운영될 수 있으니 새로운 거점에서의 캠프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학에 자원봉사 활동 거점을 마련함으로써의 장점

-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과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이 가능하다.

MZ세대들은 특성상 또래 집단과 소통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기획해 틀에 짜인 자원봉사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한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속력을 갖고 자원봉사캠프 내실화에 기여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시·공간적 접근이 용이하다.

학과별 네트워크 연계 및 다양한 여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접근이 편리한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사용 가능한 장소가 많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게 개방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에 시·공간적 용이함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 대학과 센터 더 나아가 지역주민,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홍보로 이어져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대학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건

대학캠프 운영은 대학의 학생지원처나 사회봉사단과 지속적인 업무공유와 연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인적자원 네트워크 동원력을 보다 손쉽게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캠프는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지와 캠프장의 리더십 그리고 센터의 서포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교육, 욕구파악, 현장배치, 자원봉사 시간인정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프로그램 현황 제공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진 방안 마련 및 사회봉사활동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및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제공 등을 담당해야 합니다.

- 대학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캠프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집기류 제공, 대학생 특기·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 대학캠프

: 학생자원봉사 수요 및 욕구 조사, 자원봉사 홍보, 모집, 상담, 교육, 배치에 관한 사항, 학생 자원봉사자 현장 관리, 교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활동 추진 및 그밖에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야 합니다.

4) 광주대학교 자원봉사캠프의 주요 사업

- 코로나 극복 사업

- 손소독제 및 마스크 목걸이줄 제작 나눔
-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지원 → 예방접종지원 우수자원봉사센터 선정

- 기후위기 대응

- 남구 관내 18개 버스 승강장 일체 환경 정비 및 승강장별 테마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탄소 배출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코로나19 극복 응원, 마스크 착용 캠페인, 버스 기사님 방역 키트 및 줄임운전 방지 키트 배포, 사회적 거리두기 등)
- 다회용컵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제작나눔과 ‘양옆을 살펴요’ 노란발자국 스티커 부착 활동
- 대학 내 매월 헌혈캠페인 및 헌혈증 지역 대학병원 기증

- 학과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과학부 : 지역사회 스포츠 관련 행사지원 및 야외 워터파크 진행
- 한국어교육과 : 한국어 학습지도
- 유아교육과 : 인형극 및 동화구연
- 소방학과 - 학교 주변 상가 소방시설 점검
- 뷰티미용학과 - 이미용 · 네일아트
- 사진학과 - 장수사진 촬영
- 간호학과 - 건강체험 부스 운영, 선별진료소 · 재활보건소 보조
- 호텔외식조리학과 -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 컴퓨터공학과 - 관내 공공 PC 무료 점검
- 건축학부 - 하수도 유입구 커뮤니티 매핑 등

- **지역사회 연대 및 공헌활동** : 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 연탄 및 난방유 봉사, 재난·재해 구호 활동,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을 거점으로 한 자원봉사캠프가 개소된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 및 대학 내 역할 확대 계기 마련,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기회를 확대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실천 운동 전개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대학과의 협력하여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올해 새로운 대학 캠프를 개소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을 지역적 생활권뿐만이 아닌 대학이나 기업 등 좀 더 다양하게 개방한다면 일반 시민 누구나 생활 속 자원봉사 활동에 쉽게 참여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자원봉사자들의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 시대, 농어촌 지역에서 자원봉사거점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조은영 충남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사업팀 팀장

- (지역상황)

보령시는 105개의 섬(무인도 90개, 유인도 15개)을 품고 있으며 15개의 섬에 1,500여 가구 3,000여 명이 살고 있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유인도를 보유하고, 20여개의 큰 산, 16개의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보령시 인구 96,486명(7월 말 기준)中 노인(만 65세 이상) 인구수는 28,000명(8.30.기준)으로 전체 인구수에 29%를 차지 하고으며, 어업 4,000세대, 농가 6,998세대(총 가구의 14%), 14,052명(총 인구 14.6%)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거점 운영 현황)

- 보령시자원봉사센터 거점캠프는 2014년 5개로 시작하여 2018년 13개 거점캠프 확충 운영
- 현재는 그 중 11개 거점캠프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 원거리와 인구감소로 인한 고령인구가 많고 열악한 근무 여건 및 재정지원이 적다보니 상담가의 지원 없이 계속 공석 중에 있음
- 활동범위로는 각 읍면동 단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3개의 거점과 모든 거점이 참석하는 연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거점상담가 별 활동 기간으로는 8년(2015년) 이상 상담가 2명, 6년(2017년) 이상 상담가 1명, 2년(2021년) 이상 상담가 2명, 1년(2022년) 이상 상담가 6명으로 총 11분의 상담가가 배치되어 활동 중(남 4, 여 7)에 있음
- 이 중 3명은 2~3개의 강사활동 겸직과 1명은 자영업(농업), 2명은 직업을 갖고 있으며, 1명은 단체장을 맡고 활동하고 있음
- 행복코디네이터는 2명이며 근무년수는 1년 미만임(계약직)

- (자원봉사거점 운영 한계)

- 상담가는 본업이 있는 자원봉사자이기에 전문성과 책임감은 낮을 수 밖에 없어 의욕이 없음
- 행복코디네이터가 매년 바뀌다보니 상담가와의 유대관계 형성에 어려움
그로인해 상담가 활동관리 및 행정적 업무에서 미숙함 발생

- 인구감소로 인해 청장년층 보다 고령의 봉사자가 지역축제나 행사 등 참여
⇒ 1365나눔 포털 업무시스템의 미가입자가 많고 개인정보가 필요한 회원가입으로 봉사 실적 입력을 꺼려함 그로인해 매월 봉사활동 실적 통계수치가 낮을 수 밖에 없음
- 상담가 활동에 따른 실비(식비+교통비)를 충남지역 경우 지급하고 있으나, 4대 보험 가입 등의 더 많은 혜택 제공 요구
- 주5일 근무형태가 아닌 일주일에 2, 3회 4시간 이내 근무를 하다 보니 상담가와 공무원과의 이질감으로 유대관계가 어려우며, 적응 할 때쯤엔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다 보니 괴리감 발생
- 고령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아 각 읍·면·동 별 거점 사업 진행에 어려움 발생

-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거점 구성과 범위)

농어촌 지역이 매력적인 삶터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과 경제적 기회 제공

- 수요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자연 경관 환경 보전,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 농어촌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거점에서 도맡아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반영

- (운영 방식)

농어촌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잘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은 자원봉사 거점캠프의 활성화 부분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주민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운영
⇒ 현재 미활용 농지 텃밭가꾸기 활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서비스 혁신과 역량강화를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문화관광시장의 도약을 위한 문화행사, 환경보호 등 거점캠프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 갖기
- 연령대별, 정서적 차이를 고려한 자원봉사의 사회참여 분야 확대와 지원 대책 수립
⇒ 노인회 활용 봉사클럽이 많음
⇒ 잠수협회, 수중핀수영협회, 특전사동지회 등 수요처가 많음
-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생업(농·어업)과 맞벌이 가구로 혼자 남아 있는 자녀 보살핌 프로그램(엄마품 멘토링) 개발

- (실천 방향)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활동의 거점캠프 마련

- 농어촌 경험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 유지

⇒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특성화 육성사업단(문화관광형시장) 도약을 위한 활성화를 통해 사업단과 거점캠프들이 협업하여 캠페인 및 플로깅 등 사업 진행

- 방치된 빈집 활용 활동공간 형성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일감 발굴
- 관계 인구의 농촌체험 및 각박하고 1인세대 지역사회 인연 맺기 등 지원
- 농·어업 활동을 통해 형성된 농·어촌 경관, 동식물 서식지, 농경문화 등의 유산이어가기
- 지역사회 연계 협력 질 제고: 구조화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의 다양화와 질 향상
- 상담가의 전문성 향상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적인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연수 강화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읍·면·동별 상담가 배치의 어려움으로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이수 및 소양을 갖춘 상담가 배출을 통한 전문봉사자를 권역별 2~3명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거점을 관리·운영토록 함
- 도비와 시비 한정이 아닌 중앙센터에서도 거점캠프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시도 추진
⇒ 각 읍·면·동 마을회관 어르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마을 단체복, 나만의 옷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법, 농업기술교육, 어학 교육 등) (귀농·귀어·귀촌 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계기 제공)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거점 운영의 고민과 새로운 제안 중구를 넘어서는 ‘중구형’ 자원봉사거점

김인영 서울 중구자원봉사센터 부장

서울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

서울시청, 서울역, 남대문시장, 을지로, 명동, DDP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서울 중구는 서울의 원도심으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고¹⁾, 면적도 가장 좁다²⁾. 거주 인구 12만이지만 중구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40만³⁾에 육박하며, 교통의 요충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성동구와 서쪽으로는 서대문구, 마포구와 남쪽으로는 용산구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종로구와 접한다.

우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023년 8월 말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40,407명이고, 활동 자원봉사자는 8,363명(실인원)이다. 코로나19 이전 활동 실인원 33,258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활동 중인 기업 임직원⁴⁾봉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다.

동단위 자원봉사캠프 형태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292명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양성교육을 수료했다. 그 중 현재 거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가는 올해 교육을 수료한 13명이다. 우리센터 자원봉사거점(캠프)은 2014년까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5개 동캠프와 2개의 특수사업(베이커리, 자전거수리) 캠프로 운영하다가 2015년 4월 캠프장 전원 사임과 동시에 캠프를 해체하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동캠프 형태로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자원봉사캠프가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생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구는 만나절이면 끝에서 끝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좁아

1) 2023년 7월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121,460명이다

2) 15개 동으로 구성되며, 면적은 9.96km이다

3) 2015년 사업체수 66,190개 종사자수 423,808명 / 2019년 사업체수 60,127개 종사자수 392,568명

4) 2023년 7월말 기준 675명, 코로나 이전 연간 3천여명

자원봉사센터로의 접근이 어렵지 않고, 동캠프를 거점으로 활동하기보다 자원봉사센터와 직접 연결하여 활동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둘째, 상담가의 역량이나 리더십에 개별 차이가 있고, 동주민센터와의 협력 관계에 의존하는 한계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캠프 운영의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셋째,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캠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조직을 직접 운영하였다. 중구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행복다운’이나 ‘동정부과-동정부팀’을 주민센터 마다 신설하고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동별로 조직해서 유급 인력으로 운영하였다.

실현가능한 새로운 거점 형태에 대한 고민과 시도

우리센터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새로운 거점 형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해왔는데 동 중심 주민 연계 활동이나 플랫폼 네트워크 활동 등이 있었다. 2022년까지 동별 평생교육 학습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배운 재능을 마을 주민들과 선순환 하면서 거주동의 이슈를 발굴하고 자원봉사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거주동별 거점 활동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 **2023년에는 권역별로 거점 활동을 시도 중이다.** 동별 인구 현황의 편차⁵⁾가 크기 때문에 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올해 양성교육을 이수한 상담가 13명이 세 개의 권역 거점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중이다.

거점 활동은 필요하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구의 경우) **확장된 거점 활동이 필요하다.** 생활권 의제를 중심에 두고, 생활권 중심의 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공익활동은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의 성장, 그리고 변화의 동력이 된다. 거주민 보다 생활인구가 더 많은 우리구의 경우 변화에 발맞출 새로운 거점 활동에 대한 고민은 늘 생겨난다. 거점 활동가는 반드시 주민이어야 할까? 상담가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만 거점 활동이 가능한가? 거점 활동은 사람도 기간도 꼭 지속적이어야 하나? ‘중구’가 나의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하는, 중구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생활 인구는 얼마나 있을까?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우리센터가 생활 인구 거점의 자율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사업 운영이 가능할까?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우리센터의 역할은 무엇일까? 민간영역에서 협력구조 확대 어려움, 중장기 전략 부재, 한정된 인력,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부재, 외부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재무적 취약성, 거점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주민과 생활인구 네트워크 기반 취약, 공간조성 필요(공간이 허브역할을 하기도 함), 관리체계나 명확한 역할 규정 등 고민과 또 고민만 가득하다.

5) 인구가 가장 많은 동 16,261명, 가장 적은 동 2,190명 (2023. 7월 통계청 자료 기준), 1만명 이상 7개동, 1만명 이하 8개동임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구형’ 자원봉사거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구형’ 자원봉사거점 운영을 소개하고, 더불어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2020년부터 상공회의소를 거점으로 소상공인들의 봉사활동이 격월로 꾸준히 진행 중이다. 중구는 전통시장도 많고, 상가도 많다. 2020년 이전에도 상인 중심의 봉사활동이 명절이나 연말 등 비정기적으로 연계되어 왔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마을 한 곳을 지정해 어르신 돌봄을 격월로 진행하며 작년부터는 대상 어르신 가구도 직접 추가로 발굴하고, 새로운 상인들도 참여하는 중이다. 그 외 긴급한 봉사활동(고독사 가구 정리, 쪽방촌 기후약자 돌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구에 직장을 둔 20대들의 퇴근 후 게릴라 봉사활동이 있었다. 업종 불문 명동을 중심으로 ‘중구’에서 일하는 ‘20대’라면 월1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우리센터에서 연계한 일감에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코로나 때문인지 퇴근 후 봉사활동 일감이 매력적이지 않아서인지 현재는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당시 운영진의 적극성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우리구는 “중구를 넘어선 중구형 자원봉사거점”으로 확장된 개념의 거점 운영을 고민 중이다. 거점 운영의 주체가 주민을 넘어서 생활인구로 확장되고, ‘중구’라는 지역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광범위한 시민참여의 장으로 ‘거점’을 운영하는 것이다. 정기적 네트워크의 협의구조를 가지며 주체와 의제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을 거점으로 단발성 챌린지형 활동이나 생활인구와 지역주민이 연합한 지속적 활동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연계하여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다.